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신앙 불문 기독교적 가치관 후보 선호

한기연, 기독교인 대상 대선 관련 설문조사

한국기독교언론포럼(한기연·이사장 김지철 목사)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2017 대선에 대한 기독교인 인식과 정치참여’를 주제로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25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는 대통령 선거운동 이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이뤄진 대선 관련 설문 조사다.

이 조사에서 ‘기독교인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에 대해 ‘부정적’(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인 응답은 63.3%, ‘긍정적’(매우 그렇다+약간 그렇다)인 답변은 34.6%였다.

‘투표 후보 결정시 기독교인 후보와 기독교 가치가 드러나는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정책·공약에서 기독교 가치가 드러나는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46.7%였다. 반면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기독교 가치가 특별히 드러나지 않은 후보’ 선호도는 40.9%로 6% 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한기연 공동대표인 손달의 목사(서울 서문교회)는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가진 설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국

내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 대통령 보다는, 정책과 비전에 있어서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대통령을 더 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손 목사는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국을 강타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태극기 집회’, ‘현직 대통령 탄핵’ 등을 잇달아 겪으면서 정치 참여에 대한 개인 및 교회 역할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적극적 성향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GNPNEWS]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디모데전서 2:1~2)

기도 |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끝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가올 이 나라의 정권을 통해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고,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관점과 입장을 내려놓고 더욱 간절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게 하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 콘소브의 남부도시 프리즈렌, 산 정상에서

제공: WMM

카메라 앵글에 잡힌 풍경. 반은 하늘, 반은 빼곡히 들어선 붉은 지붕들이다. 그리 높지 않은 산에서 본 풍경인데도, 사람들은 너무 작아 보이지도 않는다. 하늘만 한 눈 가득 들어온다. 내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달려가는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든다.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 그러나 가장 높은 곳에서도 나의 생각을 살피시며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 나는 비로소 내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인생

은 그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시편 139:16~17) [GNPNEWS]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34)

저도 예전에 교회 다녀봤어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저도 전에는 교회에 다녔어요. 무슨 회장까지 했다니까요. 그렇지만 계속 다니고 싶진 않았어요.”

교회 어느 부서의 회장까지 하셨다니, 아마도 그뻘 꽤 열심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으셨던가요? 예수를 당신 마음에 주인으로 모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에 다닌다는 말과 같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예배도 참석했고, 봉사도 했고, 교회 부서를 맡아 활동도 했지만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당신 삶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이나 봉사나 활동 같은 것으로 대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가 당신 삶에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으로 배우자가, 자녀의 출생으로 자녀가 당신 삶에 들어옵니다. 또 배우자의 부모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간단하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삶의 전반적인 새로운 질서와 환경이 형성되고 행동 가치 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당신 인생에 들어오는 것도 커다란 변화가 있는데 신이신 하나님이 당신 삶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것도 당신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삶은 완전히 거듭나는, 즉 새롭게 태어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본 것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어도 별것 없더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종교 행위가 아닌, 예수를 정말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분만이 당신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GNPNEWS]



일러스트레이터 박남희

INSIDE

02 뉴스 | 아시아 라오스, 베트남 국경지역 소수종족 기독교인들 “극심한 핍박”

05 인터뷰 | 강진 권사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08 뷰즈 인 시네마 | <추방: 허용되지 않는 지성> 진화론을 인정치 않아 학계에서 추방되는 학자들

아시아

라오스, 베트남 국경지역 소수종족 기독교인들 “극심한 핍박”



▶ 주민들의 방화로 전소된 집 앞에서 있는 소수종족 기독교인 가정. 본지통신원 제공

라오스와 베트남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종족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고난 중에도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

최근 본지 통신원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몽족, 브루족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권력과 지역주민들에 의해 구타를 당하거나 가재도구 파손, 가축을 약탈당하고 심지어 방화로 집이 전소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월 21일 베트남 선라 도 삼카 음

의 한 마을에서 올해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다섯 가정이 경찰과 민방위대원들에 의해 집이 부서지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베트남 케산 지역에서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케산 지역은 곳곳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해 라오스 므엥핀 지역에서도 한 기독교인 가정이 갖고 있던 브루어 찬송과 성경책을 빼앗긴 뒤, 누군가의 방화로

집이 불에 타기도 했다.

한편 베트남 북부 라오까이 성 므엥크엥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가족은 경찰의 폭행, 지역주민들의 구타에 못 이겨 집을 나와 이웃 마을을 전전하고 있다.

이들 소수민족 성도들은 이같은 공권력과 이웃 주민들의 무차별 폭력과 핍박 이후, 마을에서 쫓겨나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극소수의 현지인 목회자나 사역자가 이런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 당국에 항의하거나 법률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본지 통신원은 “매우 빠른 속도로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고 있음을 현장에서 느낀다. 그러나 핍박도 강해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기도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GNPNEWS]

아메리카

비메오, 탈동성애자 지원단체 ‘퇴출’...간증 영상 ‘삭제’

미국의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비메오가 탈동성애자 지원단체인 퓨어패션(Pure Passion)의 수백 개의 ‘탈동성애자 증언 동영상’의 모든 영상과 계정을 삭제했다.

최근 미국 기독교뉴스 라이프사이트에 따르면, 비메오는 퓨어패션의 영상들이 동성애자들이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데 이어 이 단체의 영상과 계정을 삭제 조치했다.

이에 대해 동성애, 성적 학대, 성중독, 매춘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퓨어패션은 “비정상적인 성관계나 성도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고 치유된 간증

영상과 이 분야 전문가들의 영상강의를 비메오를 통해 공개했다.”며 “이는 종교적인 극심한 편견과 검열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게시한 영상으로 절망적인 사람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자살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메오측은 “성적 지향을 변화시키려는 활동을 홍보하는 영상은 희롱,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과도한 폭력을 묘사한 영상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비메오가 이러한 탈동성애 관련 영상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비메오는 2016년 초, 동성애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사람들을 돕는 희망회복네



▶ 비메오에 게시된 간증영상(출처:퓨어패션 캡처).

트위크(Restored Hope Network)의 계정을 폐쇄했다. 또한 동성애 연구 및 치료를 위한 국제 연합 기업(the 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and Therapy of Homosexuality;NARTH)의 계정도 폐쇄한 바 있다. [GNPNEWS]

한국

기도24·365본부, ‘한국을 위한 15일 말씀기도’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중보기도자들을 일으키고 지속적인 기도정보를 제공하는 기도24·365본부(이하 기도본부)는 4월 24일부터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5월 8일까지 ‘한국을 위한 15일 말씀기도’를 시작했다.

기도본부는 정치와 안보,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를 위해 더욱 한국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야 할 때임을 절감하며,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와 같은 기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B.C.420년경 바벨론에 있던 유대 사람인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인해 황폐해진 조국 이스라엘이 일깨워지고 경건의 열망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동일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느헤미야서와 학개서를 본문으로 진행되는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도본부가 매일 느헤미야와 학개서를 중심으로 제작된 기도정보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제공한다. 문의: 기도24·365본부(www.prayer24365.org) 070-7417-4365, 010-3872-4365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4.20 ~ 4.25)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태국 남성 딸 살해 생중계...24시간 동안 영상 돌아

태국 남성이 어린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장면을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25일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남성의 친척 가운데 한 명이 이를 목격하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을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들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

하나님, 자기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없이 저지러 수 있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태국 땅에 온전히 비추시길 기도합니다.

나이지리아, 23년간 극빈곤층 3500만 명 증가

아프리카의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에서 하루 1.9달러(약 2158원) 이하 소득으로 먹고사는 ‘극빈곤층’이 지난 20여 년간 무려 3500만 명이 더 증가했다고 세계은행(WB)의 발표를 인용해 온라인 매체인 퀴츠(Quartz)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10대 인구 대국 가운데 극빈층이 더 늘어난 국가는 석유 자원이 풍부한 나이지리아가 유일했다.

풍부한 자원도, 훌륭한 제도도 인간의 근본적인 탐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한 소망의 나라로 이곳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프랑스 파리에서 대선 사흘 앞두고 총격 테러...ISIS “우리 소행”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를 사흘 앞둔 20일 저녁(현지시간)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서 경찰과 총을 든 테러 용의자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관 1명과 용의자가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는 이번 총격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테러를 자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들의 부패한 마음을 진리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탄과 전쟁하는 거룩한 군사로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길 강령합니다.

알림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한 간증이나 믿음의 고백을 나눠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한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 070-7417-0408, 010-6326-4641, gnmedia@gnmedia.org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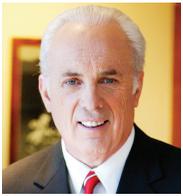
2017년 5월 2주~5월 3주

5월 2주(5.8~5.13)	5.15~16, 18~19(10시~12시)
▶경북 경산 / 열매교회 (서**) 010-3825-5515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광주 서구 / 십자가복음교회 (김**) 010-9883-2347	5.15~19(14시~19시)
5.8~9, 11~12(10시~12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 031-432-1590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5.19~20(22시~22시)
5.8~12(14시~19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 010-7766-3100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 031-432-1590	5.15~19(07시~23시)
5.12(08시~20시)	▶강원 강릉 / 은강교회 (박**) 010-7439-7020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5.18~19(06시~18시)
5.12~13(22시~22시)	▶전북 전주 / 샤론교회 (진**) 010-2638-1440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 010-7766-3100	기도참여 문의
5.15~16(09시~21시)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 (김**) 010-3290-4316	070-4803-9026~7, 010-5424-4641 www.prayer24365.org
5월 3주(5.15~5.20)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 010-7364-9982	



특별기획 |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2)

“타락한 세상에서 발생하는 동성애, 도덕적 부패 가져와”



미국은 지금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주된 이슈로 세속적인 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이같은 시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 존 맥아더 목사(사진)의 현실 진단과 대안 제시에 관한 설교를 몇 회에 걸쳐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여성해방운동의 산물인 피임문제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등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다. 피임의 등장으로 현대인들은 이제 임신의 염려 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낙태의 합법화로, 만약 피임이 잘못되어 아이가 생기면 고민도 없이 낙태해버린다.

레즈비언 커플도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아이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아이를 낳는 일반적인 결혼의 개념이 완전히 깨어졌다.

부양의 부담이 있는 ‘가족’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가족이 필요 없어졌다.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리는 ‘결혼’도 필요 없게 됐다.

미국에는 현재 약 50%의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다. 이는 결혼이 사라져감에 따라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사탄은 결혼을 완전히 말살해 버리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다. 창세기 19장에 이미 동성애가 등장한다. 소돔의 동성애자들은 인간의 형상을 입은 천사들을 범하려고 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이 죄로 인해 멸망시키셨다. 이 문제에 대한 구약의 입장은 분명하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은 이러하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신 22:5)”

그 당시에도 여자처럼 옷 입고 싶어 하는 남자들이, 남자처럼 옷 입고 싶어 하는 여자들이 있었다. ‘복장 도착증’은 새로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증한 것’이다. 이 ‘가증한 것’이란 단어는 레위기 18장에서 동성애를 언급할 때 사용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다.

신명기 23장 1절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 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하며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모



동성애를 향한 하나님 말씀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이같이 하는 자는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함을 받았다

호하게 하는 죄들은 사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레위기 18장 22절은 “너는 여자와 동침할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동성애에 대한 구약의 입장은 명확하다. 신약도 다르지 않다. 고린도전서 6장 9~10절에서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한다.

이처럼 동성애는 선택적 라이프스타일이 아닌, 비정상적이고 성도착적이며 타락한 것이다. 동성애는 확실히 타락한 세상에서 발생하고, 타락한 세상은 도덕적 부패로 나타난다. 악한 인간들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성도착증도 구원의 길 열려 있어

그렇다면 이 죄는 용서가 불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이사야 56장

1~5절을 통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거세한 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경멸하는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고 영원한 이름을 주심을 알 수 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Malakos, 동성애에서 순종적인 여성역할) 남색하는 자나(동성애에서 저돌적인 남성역할)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9~10) 선언하셨다. 그 이후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이처럼 선지자 이사야와 사도 바울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성도착적이고 파괴적인 죄에 빠진 타락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허락돼 있다. (2015.7) <계속> [GNPNEWS]

월드 뷰 World view

가짜 뉴스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최근 전 세계 각국이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가짜뉴스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테니스포럼의 기고문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속임이 난무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해야

인공수정을 위해 병원을 찾았던 부부가 DNA 검사를 통해 자신들이 이란성 쌍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 곳곳에 그들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들은 갓난아기 시절 자동차 사고로 부모를 잃고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으며 그들이 쌍둥이라는 정보가 누락된 채로 자라났다. 그러다가 대학에서 만난 뒤 교체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읽은 것은 가짜 뉴스다.

이 이야기는 미시시피 헤럴드에서 유출됐으며 이곳은 최근 거짓 속보를 만들어내는 지역 뉴스 웹사이트 중 한 곳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것이 가짜 뉴스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주요 언론사에서 이 기사가 보도된 후였다.

잠언에는 한 사람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 ‘아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은 성경이나 역사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잠언 30장을 기록한 사람이다.

그는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라고 증언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의 기도가 이어진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잠 30:7-9)

아굴은 아마도 빈곤과 가난이 우

리를 하나님에 대한 의뢰보다 물질주의로 빠지게 한다는 것을 인식한 듯하다. 이러한 그의 통찰은 현대 우리 사회의 소비문화에도 유효한 관점이다.

우리가 그의 기도에서 주목하여 볼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간구이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렇게 고백한다. ‘헛된 것(falsehood)’은 히브리어의 거짓, 속임, 약의, 과멸과 같은 극도로 부정적인 단어를 번역한 것이다. ‘거짓말(lying)’은 앞의 ‘헛된 것’의 동사형이다.

아굴의 잠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던져 준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헛된 것을 분별할 수 없다. 아굴은 잠언을 기록할 만큼 충분히 지혜로웠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헛된 것과 거짓말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거절해야만 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믿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8:44)이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후 11:14). 그는 우리가 그의 거짓과 속임을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속인다. 우리는 그의 거짓말을 거절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진리를 말할 수 없다.

아굴은 속임을 피하기 원했고 또한 다른 이들을 속이는 것을 피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신적인

도우심을 위해 기도했다. 그것이 계속 진리를 선포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사람에게 대해 이와 같이 말한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롬 3:13). 사람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오직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도움으로만 진리를 말할 수 있다.

“내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옵소서” 그의 기도가 당신의 것이 되기 원하는가?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국제팀

기획 | 다시 집으로 (4)

“주의 뜻 따르길 결심하자 ‘감형’ 판결…아들이 돌아오다”

미국의 중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동성애와 마약에 빠졌다가 하나님을 만나 회복된 아들 크리스토퍼 위안과 아들로 인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결단을 앞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기도의 용사가 된 어머니 안젤라 위안의 수기 ‘다시 집으로’(대성출판사, 2017)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안젤라, “아들의 변화”

아름다운 봄날 주일 아침, 남편과 나는 렉싱턴으로 옮겨 복역하는 크리스토퍼를 면회했다. 우리 차단벽 없이 대면하는 첫 방문이었다. 아들은 우리를 꼭 껴안았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으로 몸이 훨씬 좋아져 판사람 같았다. 그간 밀린 이야기를 나누고 면회시간이 끝나자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작별인사를 했다. 오랜 세월 우리를 갈라놓았던 장벽이 무너지고 있어서인지 더욱 아쉽고 안타까웠다. 나는 크리스토퍼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비롯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모든 것을 자비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기로 결심했

다. 얼마 후 아들은 갑작스레 뉴욕으로 이송되었다. 마약상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협조하는 대가로 형량을 감면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단지 형량을 줄이는 것보다 영적인 회복에 더 집중하기를 바랐다. 뉴욕에서 심리가 있기 30분 전, 크리스토퍼를 만났다. “감형받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사역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의 뜻을 따를 거예요.” 아들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교도소에서 성경공부 모임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아들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날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크리스토퍼, “목회자를 꿈꾸다”

교도소 내 성가대는 제일 신나는 활동 중 하나였다. 부업으로 철물점과 서비스 업무도 처리하며 교도소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3개월에 한 번씩은 감영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HIV 치료제 부작용으로 피폐해진 재소자들을 보고 있으면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 어머니와 나는 무조건 약물치료를 하는 대신 기다려보기로 했다. 이 결정이 부디 올바른 선택이길 바

랐다. 얼마 후 내게 마약을 팔았던 마약상 카림 아바스와 관련한 정 부당국의 법정 증인으로 뉴욕 브루클린으로 이송되었다. 북부 5구역 수용동 귀퉁이 방에서 40명 쯤 되는 히스패닉 사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환영했다. 에디 멘도사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였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나는 에디나 그의 동생 허먼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의 신실한 신앙과 다른 수감자들을 측은히 여기고 돌보는 행동에 자주 눈길이 갔다. 하루는 에디가 말했다. “언젠가 넌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주에 에디의 부탁으로 설교를 했고, 이후 매주 한 번씩 설교를 담당했다. 설교를 준비하며 성경을 탐독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다. 11월, 맨해튼 교정센터로 이송되었다. 나는 6명의 소모임을 만들고 어설피지만 성경공부를 인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신입 재소자들이 수감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고 복음을 나누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놀라웠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알게 되면서 에디의 말이 다

시 떠올랐다. 2월, 카림 아바스 공판 증인으로 법정에 참석했다. 증인석에 올라가자 그가 나를 노려보았다.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에베소서 5:11 말씀을 떠올렸다. 아바스는 유죄를 판결 받았다. 내 협조로 수사 성과를 냈다고 판단한 검사보의 요청으로 형량 감경을 위한 심리가 열리게 되었다.

안젤라, “아들이 돌아온다!”

공판에서 검사보와 변호인은 모두 크리스토퍼를 충실한 증거인으로 인정했다. 그들의 눈에 지금의 크리스토퍼는 마약 중독자 판매상

으로 72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던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내게 아들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크리스토퍼가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오랫동안 기도한 일이며, 그동안의 은혜를 나누었다. 그리고 판사에게 1년 전 크리스토퍼에게 내려준 무거운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 선고가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판사는 예외적으로 과감하게 36개월 감형을 판결했다. 36개월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 아들이 풀려날 날이 머지 않았다. 크리스토퍼가 곧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계속> [GNPNEWS]



▶ 1999년 3월 렉싱턴 연방교도소 앞에서 아들에게 손을 흔드는 아버지 레온 위안. 이날, 우리 차단벽 없이 처음으로 면회를 했다(Christopher Yuan 캡처).



선교 통신 | 부흥의 현장 (1)

“교인에게 압수한 성경을 읽던 중 회심...공산당에서 제명돼”

베트남 북부 지역 라오까이에 거주하는 몽족 그리스도인 짱 아강 목사는 현재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한때 공산당 간부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는 압수한 성경을 읽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현재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의 간증을 소개한다. <편집자>

저는 베트남에서 한 지역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올해 29살의 짱 아강 목사입니다. 현재 북부지역에 있는 라오까이 도에 있는 따핀교회와 사빠 지역과 인근의 사역 전체를 책임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 글은 주의 사역으로 인해 일어난 여러 고난의 사건들에 대한 간증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이런 어려움과 핍박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더욱 생생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베트남 라오까이 도 사파군 따핀 읍에서 16살에 주님의 부

르심을 받았습니. 당시 우리 마을에서는 짱아쯔와 타이 티 주아 두 사람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당시 저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 매우 증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월경 이 두 사람의 가정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저는 따핀 읍 짱짜 마을의 공산당 지부장으로 이 두 집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찾아가 부수고 헐박하는 등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청년단에게는 그 집을 찾아가 무너진 조상 제단을 다시 설치하고 오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저의 끊임없는 저주와 핍박에도 그들은 언제나 선하게 저를 대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고, 우리 가정을 돌보아 농사도 지어주었고,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저는 얼마 후 라이찌우의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선물했던 베트남어 성경 한 권을 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으로 보내야 할 성경 중 일부를 집에 보관했고 조



▶ 짱 아강 목사의 설교하는 모습

금씩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구약 첫 책인 창세기를 통하여 2004년 4-5월 사이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금방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 결과로 저는 곧 공산당 지부장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때 따핀 마을에서는 2004년 5월 22일 저를 통하여 12가정의 87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

자 읍의 행정 관청에서는 군관민(일반인과 경찰, 군인들, 지역 민방위대)을 다 동원하여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그중 약 100kg의 돼지 3마리를 빼앗아 읍 마을 사람들 전체가 잔치를 벌여 먹게 했습니다.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기독교를 믿으면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겁을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는 계속되었고 교회는 계속 성장

했습니다. 2004년 7월에는 40가정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행정 관청은 12가정의 땅을 빼앗고, 3가정의 가족들을 가져갔습니다. 2가정은 큰 재산인 오토바이를 압수당했고, 어떤 가정은 집 안에 합판용으로 말리던 나무들까지 다 압수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읍 인민위원회에 끌려가 감금당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타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타 당하였고 저와 함께 한 사람은 따핀의 동굴로 일주일간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숨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달리 방법은 없었습니다. 당시 읍의 면장이신 작은 아버지께서 여러 번 심하게 책망하셨고 저는 복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작은 아버지도 복음을 받아들여 읍의 책임자 직위에서 밀려나셨습니다. <계속>

[GNPNEWS]

번역: L 통신원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고통과 위기. 그로 인해 보통 사람들은 절망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 그것뿐일까? 강원도 인제에 3년 전 난소암 수술치료 후 최근 다시 재발한 중에 오히려 진정한 기쁨을 찾게 된 강진 권사를 만났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고백이 담겼다면 아들이 직접 지어 부른 노래를 들려주었다.

“왜 나는 항상 남이 가는 대로 평탄한 길을 못 갈까. 왜 나는 항상 주님을 섬겨도 고난밖에 없는 걸까.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수없이 기도해 봐도 내가 항상 맞이하는 것은 높은 현실의 벽.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참된 은혜를 말하네. 바로 주님 함께 하시는 이 순간. 주님께서 귀로만 듣던 주를 이제 눈으로 봅니다.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진정한 은혜이고 진정한 축복이라 믿습니다. 주님 나 아파도 괜찮고 고난이 와도 난 좋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습니다. 이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3년 전, 작은아들이 기독교인 헤브론원형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평소애 아주 건강한 편이었는데 어느 날 배가 만사처럼 불러왔죠.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면서 3개월에서 6개월 남았다고 했어요. 간과 대장에도 전이가 있었고 이미 4기로 넘어가는 중이었어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과정이 누군가에게 이끌리듯 순적하게 되어서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술이 잘 되었고, 이후 항암 치료를 결정하고 치료하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가 붙드신 것을 계속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은혜로 지내오던 중, 작년 가을에 좀 무리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후에 검진했을 때 재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회복되고 있었는데 재발한 것뿐만 아니라 종양이 너무 빨리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말기 암

-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가족들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처음 발병했을 때, 남편과 아이들은 제가 죽을까 봐 두려워했죠. 군인인 남편은 진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진급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강진 권사(12사단 을지교회)

포기할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큰아들은 외국 유학 중이었는데 처음엔 알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믿음을 격려하며 함께 기도해 주었죠. 암이 재발했을 때 작은아들이 학교 졸업과 함께 2년 단기선교사로 파송되는 시점이었어요. 엄마가 이런 상황인가면 안된다고 만류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도 많았죠. 하지만 아들과 이렇게 나눴어요. ‘너는 너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는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아들은 하나님께 엄마를 맡겼다면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가 있어요. 죽어도 하나님의 것, 살아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 땅에 나를 살려두신다면 할 일이 있는 거고, 데려가셔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가족이 한마음으로 합쳐진 거죠.”

- 아주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처음 수술할 때 대장 검사를 위해 4L의 물을 마셔야 하는데 이미 배에 복수가 차서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어요. 기도해주셨던 한 권사님이 하나님이 응답해주셨다면 이제 마셔보라고 했죠. 그런데 정말 마시게 됐어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하면서 첫 식사를 해야 하는데 미음 한 숟가락을 삼킬 수 없더라고요. 그때 기도하면 먹을 수 있고, 기도 안 하면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지금 나한테 어린아이처럼 하나씩 가르쳐주시는구나.’ 먹고 마시는 것 하나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다

- 매 순간이 은혜였군요.

“수술 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 몸속에서는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제 마음으로는 이 암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소식을 들으며 ‘이곳에는 왜 지진이 일어나지 않지? 내가 누워있는 이 집은 왜 떨정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의 손길이 이걸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아, 주님은 우리 삶 속의 모든 곳에 계시구나.’ 이게 딱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때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본다는 옴의 고백이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저한테 암이라는 병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이 암이 내에게는 축복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정신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그런데 전 정말이었어요.”

- 자기 정신으로 그런 고백을 하기는 어렵죠.

“재발 판정을 받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씀해달라고 구했어요. 기도 동역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적은 있지만, 이번만큼은 나에게 직접 한 번만 말씀해달라고 구했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 맞냐고 하나님 앞에 떼를 썼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밥

을 먹는데 밥맛도 없었어요. 하나님 음성도 못 들었지, 재발은 했다고 하지, ‘그럼 여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들은 건가?’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아는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작은아들 학교에서 진행하는 ‘인터미션즈’라는 연극이 중계된다고요. 그 영상을 보는데 우리 작은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음악 팀이었거든요. 남들은 다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아들을 생각하다보니 그게 저 같은 거예요. ‘삶의 무대에서 나는 조명 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한 번도 무대에 올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화면에 음악 팀이 나왔어요. 카메라가 제 아들을 비춰줬어요. ‘재가 알까? 내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새 연극이 마쳐지고 모든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인사를 했어요. 아들이 기뻐하며 웃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나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저한테도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 이거구나. 나는 주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항상 이렇게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게 저한테 또 실체가 되면서 이제는 주님께 저 보고 계시냐는 기도는 하지 않아요.”

-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믿게 되셨군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제게 너무 실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 자다가 깊은 새벽에 깬데 낮에 본 아이들의 연극 대사 하나가 계속 맴돌았어요. ‘너희는 나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없다.’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습디다. 그래서 저에게는 절대적인 기쁨이 없나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찬양 가사가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제가 읽은 모든 말씀이 언약이었어요. 근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이미 회복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으로 ‘그렇지, 주님이 회복하시겠지 뭐.’ 이 정도로 받고 주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이 강하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한

심해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라고 할 수 있나요?’라며 정말 미친 여자처럼 울부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모든 것에 응답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응답하셨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평탄하지 않았던 삶이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저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주셨어요.”

- 너무 놀라운 은혜였네요. 하지만 이런 과정 중에 혹시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그저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성경공부 열심히 하고 인도하면서 ‘이쯤이면 되겠지.’ 생각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래서 암에 걸린 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었군요.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일단 제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원망이 사라졌어요. 동기들 중에 상담치료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느껴져서 원망할 이유가 정말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확실히 믿어지고 의심하지 않게 되었는걸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도 이런 평안함을 주셨어요. 남편과 아이들 모두 감사드리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 돈을 2배로 불러야 만족하는 돈의 노예였어요. 근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많은 치료비용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되면서 주님이 갚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와 함께 더 이상 돈의 노예짓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재발이라는 선언을 들었을 때도 오히려 평안했어요. 이젠 세상 누가 위로한다고 해도 이런 평안은 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네요.

“네, 또 하나님은 주위에 암 환자들이 제게 계속 붙어있어요. 계속 연락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들은 제가 간단한 문자를 넣어도 서로의 마음을 아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저보다 더 불가능한 암환자 집사님에게도 제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며 서로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오직 은혜의 복음(2)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사사시대 타락의 한복판엔 제사장들이 있었다.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믿지도 않으면서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전정터로 가져왔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전쟁의 승리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과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까? 오히려 죽음이라는 심판을 불러왔고, 법궤는 빼앗기고 말았다.

이 소식에 엘리 제사장은 비뚤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 앞에 해산을 앞두었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갑작스런 해산 끝에 죽음을 맞이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빼앗긴 법궤와 함께 했다. 법궤가 블레셋 진영을 끌려다닐 때 주님은 '홀로' 당신의 영광을 지키셨다. 법궤가 이동하여 들어가는 블레셋의 도시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결

국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은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법궤를 실었다. 멩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쫓 나는 소 두 마리가 수레를 끌게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마리 소들은 울음 소리를 낼 뿐, 좌우로 치우침 없이 벤세메스로 갔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에 두 마리의 어미 소들이 본성을 거슬러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일을 통해 블레셋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었다.

여호와와 궤가 없는 동안 일어난 경건의 열망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의 응답을 더 무서워한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다. 오히려 벤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와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뿐이다. 결국 여호와와의 언약궤는 2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 누구도 법궤를 찾지 않았던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족속 안에는 경건의 열망이 일어났다. "궤가 기랏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 년 동안 오래 있는 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삼상 7:2)

한나를 통해 예비하신 사무엘이 일어나 "복음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쳤더니 그동안 하나님 없이, 정신없이 살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미스바에 모여 회개했고, 부흥이 임했다. 사탄은 부흥의 때를 정확하게 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사탄도 길길이 날뛰다. 부흥은 그래서 전쟁을 수반한다.



일라스트레이터 임이량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는 이처럼 현상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코앞으로 들이닥쳤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사무엘 당신은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그들은 요청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위기다. 남북 간의 위기는 수십 년을 이어 왔고, 국론은 너무나 분열되어 있고, 도덕은 땅에 처박혀 있고, 자

살물은 세계 1위이고, 다음 세대는 희망을 찾을 수 없고, 교회는 맥을 잃고 있는 이때, 이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부흥케 하신다. 부흥이 임하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기도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외치게 된다.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랬다. 블레셋의 위협이 눈앞에 있었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다.(2016.5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LOG미션 대표)

복음과기도 메시지 오디오 CD 시리즈



각 오디오CD(2장 한세트), 6000원(택배비 별도) 메시지가 CD 2장에 수록되어 있으며 30분씩 4개의 트랙으로 편집,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 [느헤미야52기도정보집 특별판]



- 1권 : 복음의 영광
- 2권 : 오직 은혜의 복음
- 3권 :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떠나는 자
- 4권 :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 5권 : 절대 믿음
- 6권 : 우리 세대에 그날의 영광을!

세트 : 43,000원 날권 : 8,000원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최상의 기쁨”

“또 외국에서 사역하다 항암 치료하러 오신 한 목사님과도 교제하고 기도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많은 분들을 만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도 받고 그랬어요.”

다른 암 환자들을 위로하기도

- 정말 감사하네요. 혹시 소망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3개월씩 생명을 받아온다.’고 웃으면서 얘길 하곤 했는데요.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완치가 된다면 이 집을 선교치유센터로 드리기로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병을 얻어서 돌아올 때, 천주교는 100% 다 책임져준다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제도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어떤 질병에 걸려서 오면 제가 아는 식이요법 등의 방법으로 돕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에게도 이미 그런 마음을 주셨더군요. 이 집 이름도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주 날개 밑’이에요. 3개월 이후 완치판정이 나면 그

렇게 드리려고 해요.”
- 마지막으로 질병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투병을 하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장 많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는지,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내가 느끼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도 그분은 일하고 계셨어요.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보다 지금 내게 주시는 하루하루가 감사의 조건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었었고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병이 낫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시는데 그건 어느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GNPNEWS]



L.S.



“하루라도 빨리 검정고시 시험을 쳐서 인정받고 싶었다”

매주 복음 훈련을 받으면서 사실 어떤 기대도 없었다. 어머니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강의를 통해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감추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마음을 꽂꽂 싸매고 있었다.

또한 하나님은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로 받게 하심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문득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가? 아닌데. 나 죄인 맞아. 근데 난 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것 같지?’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이었다.

강의는 이어졌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다. 어렸을 때 거인 골리앗도 물리치고 전쟁에서도 항상 승리했던 다윗. 그래서 내가 존경하고 뭔가 자랑은 다른 것 같이 느껴졌던 영웅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을 일으킬 수 있을까?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밧세바 사건은 많이 들어봤고 잘 알던 내용이었다. 그런데 참 이상했다. 다윗은 뭔가 다를 줄 알았다. 아니, 다른 것 같았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 다를 바가 없고 다윗도 나도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없다.’는 나 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다. 다윗은 이 말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주

님께 나아갔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음을 주님은 한 사건을 통해 드러내주셨다.

검정고시냐? 훈련이냐?

4월 8일 토요일은 검정고시 시험이 있는 날이다. 그러나 그날은 복음 훈련을 받는 날이기도 하다. 나는 그때 훈련을 빠지고 시험 보러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

“
사실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었다
주님은
한 사건을 통해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마음을 드러내주셨다
”

런데 엄마가 갑자기 “너, 기도해봐.”라고 하시며 그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것을 놓고 기도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엄마가 이 얘기를 하면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없다. 4월 8일에 시험 보지 말고 훈련 받으러 가라는 얘기였다. 공부도 별로 하진 않았지만 이번에 시험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8일에 어떻게 하면 시험 볼 수 있을지 이리저리 계산하며 머리를 굴렸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사람의 마음은 특히 선택할 때 드러난다.’고 했

던 강의 내용을 생각나게 하셨다. 사실 내 생각엔 아빠도, 큰 아빠도 전부 내가 홈스쿨링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시는데 시험을 빨리 보고 조금이라도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셨을 때 ‘큰 아빠 만날 때가 명절인데 그럼 추석이 언제지?’라고 생각하며 계산하고 있었다. 큰 아빠나 다른 누구라도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무서웠고 두려웠다.

결국 나는 내가 위급하거나 선택해야 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쓰고 나아오기로 결정한 나를 붙들어주셨고 시험을 연기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아빠도 붙들어주셨다.

어떤 사건이 터져서 그때 주님이 일하셔야만 믿는 내 모습이 좀 부끄러웠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남은 훈련기간 동안 내게 행하실 주님을 마음껏 기대하며 나아간다. 주님이 하셨다. [GNPNEWS] 한성경 자매(16)

부흥을 위하여

중국으로 건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꽃제비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중국으로 넘어간 꽃제비

북한에서 오랫동안 꽃제비로 장마당을 떠돌아다니던 인철이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20cm 정도 되는 순대 하나를 낚아채어 달아나다 붙잡혔다. 인철이의 두 손을 밧줄로 단단하게 묶은 보위부원은 더러운 것을 치우기라도 하는 듯 점점 더 인철이를 거칠게 다루었다.

“이 간나! 먹을 게 없으면 콧물 뚝 떨어질 것을 개지고, 남의 음식을 훔쳐 먹고 난리를 치고... 너 같은 것들은 거저 모두 쓸어버려도 시원티 않아! 알간?”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두 손을 묶고 난 보위부원은 인철이를 운동장으로 끌고 나갔다. 그리고 인철이의 두 손을 철봉에 매어 있는 줄에 묶고는 밑에서 그 줄을 확 잡아당겨 버렸다. 순간 “으악!”하는 비명과 함께 인철이는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 가장 높이까지 올라간 순간 인철이의 몸은 다시 땅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그 고문으로 인철이의 두 팔은 모두 빠져 몸에 겨우 붙어 있을 뿐이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통증이 몰려왔지만 소리쳤다가는 더 큰 고문이 가해지기에 이를 악물었다.

결국 인철이는 죽기를 각오하고 중국으로 넘어왔다. 얼마 후 한 선교사가 빠진 팔 때문에 힘들어하며 방황하는 인철이를 발견하고는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밤에 몰래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해 주었다. 선교사의 극진한 간호와 사랑으로 인철이의 팔은 점점 아물어갔고, 영혼의 상처도 회복되어갔다. 어느덧 인철이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청년으로 변화했다.

가족에게 돌아가 전도

“배고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이곳까지 온 것은 복음을 듣고 훈련된 너희들로 하여금 북한에 다시 돌아가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인철이의 마음에는 북조선에 돌아가 예수



를 전하고 싶은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곤 했다. 그로부터 2년 후, 인철이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북조선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곧 경비병에게 붙잡혀 끌려갔다. 경비병은 “중국에서 누굴 만났고,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말해 보라우! 너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 공화국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라며 매질을 가했다. 계속되는 심문에 인철이는 머리에서 거짓으로 생각해 낸 내용을 말했다.

그렇게 해서 기적같이 풀려난 인철이는 마을 어귀에 숨어 기다렸다가 밤이 깊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보자 어머니는 놀라움과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인철이는 철저한 공산당원이며 주체사상으로 무장

된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아버지는 “선교사들은 모두 미제 앞잡이들이야. 감언이설에 속아 그따위 이상한 것을 가지고 집안 망치려고 그래! 당장 집어치우지 않으면 내래 당에 고발하겠어!”라며 난리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인철이는 그러한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인철이는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뒤로하고 밤중을 틈타 다시 중국으로 건너왔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났다. <계속>[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나의 소망

모든 약속을 믿으라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그는 미국에서 일어난 2차 대각성운동의 불길에 남아프리카에도 번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거둬낸 신자들의 영적인 인도를 위해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에 관한 240권의 책들을 썼다. 그의 저서가 특별한 이유는 신앙의 핵심이 일목요연하게 해설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경건과 기도 생활 가운데 직접 깨닫고 체험한 것을 담았다. 탁월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된 앤드류 머레이의 비결은 성경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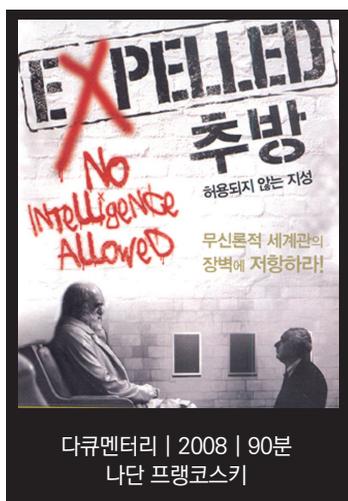
“모든 약속을 무조건 믿고, 모든 명령에 주저 없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서려고 준비하는 것은 성경 공부의 유일하고도 참된 태도다.” [GNPNEWS]



뷰즈인 시네마

Views in Cinema 추방: 허용되지 않는 지성

진화론을 인정치 않아 학계에서 추방되는 학자들



독일 나치 시대, 유대인 거주지역으로 분리한 계도의 장벽이 세워지는 모습이 흑백 영화 필름으로 빠르게 돌아가며 영화가 시작된다. 이 다큐의 화자(話者) 벤 스타인은 유대인 변호사이자 저널리스트로 회의론자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서 진화론자들의 억압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벤 스타인은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여러 사람을 만나 인터뷰한다. 자연사박물관의 편집장이었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스티븐버그. 그는 지적설계론자인 스티븐 마이

의 논문 게재를 승인했다. 하지만 과학계는 지적설계론에 신빙성을 부여했다며 그를 지적 테러리스트로 보고 추방했다. 베일러 대학의 로버트 마크 교수 경우, 대학측이 그의 연구가 지적설계론과 관계있음을 발견하고 연구실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연구비 반납을 요구하고 고립시켰다. 천문학자인 곤잘레스는 우주가 지적인 존재에 의해 설계됐다는 책을 냈다가 대학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했다. 행성발견에 공헌한 연구실적에도 불구하고 종신교수직 심사에서 탈락했고 그의 경력마저 위태롭게 됐다.

이런 위협을 받지 않으려면 지적설계론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창조론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진화론자들은 이들을 순수과학자들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지적설계론은 ‘창조론을 끌어들이기 위한 핑계’이며 이것을 학교에서 허용한다면 그 다음에는 기도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많은 학자들은 진화론에 문제가 많다고 말한다. 분자생물학자 조나단 웰스는 진화론의 증거들은 오류가 많고 왜곡되어 있다고

했으며, 벌런스키는 진화론의 옳고 그름을 묻기 전에 진화론이 사실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화론자인 도킨스는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화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지하다고 말한다.

영화는 다시 흑백 영화 필름으로 장벽을 보여준다. 두 가지 가설이 있다. 반대 의견은 생각할 수 없다. 한쪽의 가설만 허락된다. 과학계 주류는 반대를 인정하지 않는다. 좋은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반대편에 서면 안 된다. 과학계에 깊이 들어가면 패러다임에 도전할 수 없다. 싸워야 할 대상이 너무 크고 견고하기 때문이다.

“홀로코스트”, 진화론적 투쟁의 일부, 과학으로 용인된 악(惡)

다윈주의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종교를 통제했던 한 정권이 떠올랐다. 히틀러는 열성적인 진화론자였다. 그는 일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먹지도 말아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살인을 자행했다. 정신박약아를 격리시키고 이들의 결혼을 금지하면 진화를 촉진할 수 있

다고 생각했다. 5만 명이 부지불식간에 사라졌다. 그러나 가난한 하류층의 산아 제한과 낙태,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이 움직임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나치 통제 하에 우생학은 포로수용소에서 정치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대규모로 자행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같은 처음 목적은 사라지고 다른 인종을 억압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정치적 상대들인 유대인들이 생물학적으로도 열등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전쟁 자체가 히틀러를 위한 진화론적 투쟁의 일부였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악이 허용된 것이다.

냉전 시대의 독일은 사상을 억제하고자 장벽을 쌓았다. 그런데 그 모습은 현재의 과학계에서도 발견된다. 과학이 정의한 이외의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반대편에 섰다면 추방당한다.

그러나 실상 누가 추방을 당한 것일까? 추방이라는 단어에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났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던 아담과 하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축을

을 지어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 사탄은 십자가의 영광을 감추고 빛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모든 만물은 주님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세상의 지성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성에서 추방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성을 우리에게서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이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을 보았다. 팽팽한 대립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은 두 주장 사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 속에서 정말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진리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믿는 믿음을 주시도록 구하고 싶었다. 하나님의 지성으로 초대하시도록 말이다. 이제 교회는 이미 죄로 인해 에덴에서 세상으로 추방당한 인간이 다시금 천국 본향을 향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의 복음을 전할 자로 서야 한다. [GNPNEWS]

곽정민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오래된 짐들 속에서 발견된 비닐봉지... 축복의 통로 되다

봄기운이 느껴지는 어느 따스한 봄날, 주님이 불러주신 기독교에서 교사로 섬기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저에게 주님은 또 하나의 감사와 기쁨의 추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날은 함께 사역하는 한 지체의 부모님이 이사할 시골집을 청소하는 섬김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하교한 토요일 오후,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60년이나 된 전형적인 시골집! 그 집의 주인 되시는 부부가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라고, 또 자식들도 그 집에서 키워 유학까지 보내셨다는 두 분. 그런데 그분들은 오래된 불교신자였습니다. 3년 전 노모가 돌아가신 후 집 관리를 더 이상 할 수 없으셨다며 그 자리를 맡아줄 수 있는 분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가득 쌓여있던 물건들. 오래 방치된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60년 된 모든 것을 다 꺼내서 완전히 비운 후에 청소를 하기로 하고 주님께 모든 시간을 올려드리며 인솔하신 선교사님의 기도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짐들, 아니 쓰레기들. 짐을 꺼내면서 많은 것들을 목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죄인 된 내가 얼마나 꺼내도 꺼내도 끝이 없는 죄 덩어리인지, 그래서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으로 바꾸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참 물건들을 옮기고 있을 때에 한쪽 구석에 있던 검정 비닐봉지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느껴지는 이 특별한 느낌! 열어보니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꼬깃꼬깃한 편지봉투에 사용될 내용이 적혀있고 함께 들어있는 현금 200만원! 또 다른 봉지에 현금 40만원!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돈을 보관하셨던 모습과 비슷했기에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손에 240만원이 들려졌습니다. 순간 내 마음에 찾아온 이전과는 다른 벅찬 흥분과 기대감!

그 순간, 어떤 생각도 어떤 마음도 없이 오직 주님이 행하실 일이 기대되고 설렸습니다. 그날 저는

총 290만 원의 숨겨진 돈들을 발견했고, 바로 주인에게 달려가 돈을 찾았다고 말씀드

리고 봉투를 드렸습다. 그러자 두 분은 매우 당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두 분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불교인 전문 전도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으신 한 동료와 함께 섬겼던 여러 동료들의 중보기도로 두 분은 복음에 대해 자세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완전한 은혜의 섭리였습니다. 그분들에게 전한 복음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에 감사했고, 깨끗이 청소된 그 집에서 복음만이 영화로워지게 하실 주님 때문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절에다가 시주하려고 준비했던 돈을 식사나 하고 가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상에게 갈 제물을 주님께로 돌리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사



예수 생명 안에서..♥

일러스트레이터 이수진

42:8) 돈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과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인 모든 영혼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푸른 잎이 돌아오고 꽃이 피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봄이 오는 것처럼 내 안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된 교회 안에서, 또 온 열방 안에서 기필코 보게 하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의 영광 때문에 오늘도 저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하루를 삽니다. 아니,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고 계신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GNPNEWS]

박계환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 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7. 4. 14 ~ 4. 26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은진 강종채 권혜령 김선희 김성훈 김수미 김혜신 박숙자 박은길 송미희 신선영 안병윤 이경희 이병송 이복길 이순희 이현희 임종태 조경미 조명숙 조세라 지식범 차인순 최근희 허금희 무병

교회 및 단체

그루터기교회 감화제일교회 산돌교회 시은교회 시흥지체교회 열매교회 전주은누리교회 전주은혜샘교회 천보산기도원 팔복감리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체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